

루마니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9.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5

I. 일반개황

면적	238천km ²	G D P	1,897억 달러 (2011년)
인구	21.41 백만명 (2011년)	1 인 당 GDP	8,860 달러 (2011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가미)	통화단위	Lei
대외정책	유로존 가입 추진	환율(달러당)	3.05 (2011년)

- 루마니아는 유럽 동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우크라이나, 몰도바, 헝가리, 세르비아, 불가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인접국인 헝가리, 불가리아, 세르비아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와는 루마니아의 NATO 가입 이후 긴장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2005년 미국의 루마니아 내 군사기지 건설 허용 등으로 소원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중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4월에는 미하이 라즈반 운구레아누 총리가 야당의 요구로 실시된 투표에서 불신임을 받아 임명된 지 2개월 만에 사퇴하고 후임으로는 빅토르 폰타 총리가 임명되었음. 폰타 총리는 트라이안 바세스쿠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했다며 탄핵을 주도했으나 2012년 7월 실시된 탄핵 국민투표가 부결되면서 바세스쿠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였음.
- 루마니아는 2004년 NATO 가입 및 2007년 EU 가입에 성공함에 따라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2009년 3월 IMF, EU 등과 2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하였음. 또한 2011년 3월에는 IMF와 47억 달러 규모의 신규 대기성차관 협정을 체결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f
경제성장률	7.4	-6.6	-1.7	2.5	1.5
재정수지 / GDP	-4.8	-7.3	-6.4	-4.1	-1.9
소비자물가상승률	7.9	5.6	6.1	5.8	3.0

자료: IMF.

□ 2011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으나 2012년에는 경제성장률 둔화 예상

- 루마니아는 2009년에 주요 수출시장인 EU 지역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해외차입여건 악화로 내수가 위축됨에 따라 -6.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2010년에는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 시행 등으로 -1.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경기침체가 2년 연속 지속되었음.
- 2011년에는 농업생산 증대, 수출 호황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5%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나, 2012년에는 유로존 경기침체에 따른 대 EU 수출 감소와 가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1.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루마니아 정부는 EU 구조조정 기금을 재원으로 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내수를 확대시키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GDP 대비 국내총투자는 2010년 24.8%에서 2011년에는 28.8%로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으며 2012년에도 30.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EU 구조조정 기금: EU 회원국 중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를 지원하여 경제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설립된 기금

□ 2011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하락세

- 2009년에는 양호한 농작물 작황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하락 및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 등으로 루마니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둔화된 5.6%를 기록함. 그러나 2010년에는 부가가치세 인상, 식료품 및 유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1%로 상승함.
- 2011년에는 부가가치세 인상 효과 소멸에 따른 기저효과와 식료품 가격 안정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8%로 다소 둔화되었으며, 2012년에도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긴축정책으로 재정수지 적자 개선

- 루마니아의 2009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수당 지출 증가 등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 및 세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의 -4.8%에서 -7.3%로 확대되었음.
- 루마니아 정부는 2010년 이후 IMF 및 EU의 긴축재정 운영 권고에 따라 공공부문 임금 삭감, 조세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2010년 -6.4%, 2011년 -4.1%로 점차 개선되고 있음.
- 2012년에도 긴축재정 기조 지속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1.9%로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11월 총선을 앞두고 지출 증가 및 감세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제조업 부문의 취약성 지속

- 루마니아는 1990년대 이후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지속, 제조업 기술력 육성 실패 등으로 경제 구조조정이 부진하였으나 EU 가입 이후 개선되는 추세임.

- 루마니아의 산업구조는 점차 다각화되고 있으나 2011년 기준 루마니아의 총수입에서 전기·전자장비(15.1%)와 기계류(11.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여전히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산업별 GDP 구성(2011): 서비스업 59%, 제조업 33%, 농림수산업 8%

□ EU 회원국에 편중된 무역구조

- 루마니아는 EU 회원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EU 경제상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2011년 기준 EU 회원국이 루마니아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1%,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국 불안과 유로존 위기로 통화가치 급락

- 루마니아 레이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치변동 폭이 확대됨. 레이화 가치는 2011년 5월 이후 점차 하락하였으며 2012년 6월에는 국내 정치 불안과 유로존 위기 심화로 사상 최저인 미달러 대비 3.6레이, 유로 대비 4.5레이를 기록하였음. 2012년 11월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고 유로존 위기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환율 불안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은행 부문은 건전한 편이나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

- 루마니아의 은행 부문은 자본화 수준이 높고 유동성이 풍부한 편이며 감독 체계도 잘 작동하고 있으나, 유로존 위기에 따른 외국금융기관들의 자금 회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음. 루마니아 은행 부문 자산의 83%가 외국 소유이며, 이 중 오스트리아 은행이 39%, 그리스 은행이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나. 성장 잠재력

□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 우려

- 루마니아 정부의 인구조사(2011년 10월) 결과에 따르면 루마니아 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약 230만 명이 감소한 1,904만 명을 기록하였음. 이러한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 및 소비와 생산 감소를 야기하여 장기적 성장 동력에 손상을 줄 것으로 우려됨.

- 1990년대 민주화 이후 다른 고임금 EU 국가로의 노동 이주가 활발해졌으며, 특히 우수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이 두드러짐. 또한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10%대로 하락하면서 인구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기업경영여건 평가순위, 2011년 소폭 하락

- 매년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하는 기업경영여건 평가에서 루마니아는 2010년 전체 183개국 중 65위에서 2011년 72위로 순위가 하락하여 경영여건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로는 사업등록 절차, 투자자 보호제도 및 법규 등에서 경영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 루마니아는 관료주의와 복잡한 행정절차,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 미비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외국인 투자 유입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규제 간소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경기침체로 2008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위축

- 2000년대 들어 루마니아 경제성장의 주요 원천이 되어온 FDI 유입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2008년 대비 80% 감소한 19억 유로에 머무름.
- 연중 FDI 유입규모 추이(억 유로): 95('08) → 35('09) → 22('10) → 19('11)
- 2012년에는 정부 보유기업의 지분 매각이 투자를 일부 촉진하겠으나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면서 FDI 유입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루마니아의 2012년 1~7월 FDI 유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한 9억 유로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경상수지 적자의 37% 수준임.

다. 정책성과

□ 2009년 3월, IMF 등과 2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합의로 경제위기 진정

- 루마니아 정부는 2009년 3월 말 IMF 등과 2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루마니아는 2008년 10월 이후 헝가리,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에 이어 동유럽 국가 중 다섯 번째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가 되었음.

- IMF는 구제금융 지원조건으로 공공부문 임금 25% 삭감, 부가세 인상(19%→24%) 등의 강도 높은 재정 긴축안을 제시하였으며, 구제금융 지원이 루마니아의 통화가치 안정 및 단기 유동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됨.

□ 2011년 3월, IMF와 신규 대기성차관 협정 체결

- 루마니아 정부는 2011년 3월 31일, IMF와 2년 만기 47억 달러 규모의 신규 대기성차관 협정을 체결하였음. 이는 지난 2009년 3월에 IMF 등과 체결한 구제금융 지원 협정이 2011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루마니아 정부가 예비적 성격의 신규 협정을 체결한 것임.
- 신규 대기성차관 협정 체결로 루마니아 정부는 IMF의 지원조건인 재정적자 감축 달성을 위해 2012년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또한 IMF는 루마니아의 의료보험제도, 조세제도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 추진을 권고하고 있음.

□ 구제금융 지원조건 이행실적 양호

- IMF, 유럽위원회, 세계은행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2012년 7월 31일부터 2주간 루마니아를 방문한 후 루마니아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 등 구제금융 지원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 상반기 1.9%에서 2012년 상반기에는 1.1%로 감소하여 IMF와 협의한 목표를 달성함.
- IMF는 2012년 말까지 루마니아 공공부문 임금을 삭감 전인 2010년 6월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방안에 동의하였으나, 낮은 세율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수입 감소의 우려를 들어 반대함.

□ 경기 부양을 위해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 단행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루마니아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하여 2012년 3월에는 5.25%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함.
 - 하지만 유로존 위기와 국내정치 불안으로 레이화 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통화당국은 2012년 3월 이후 5.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당분간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기준금리 변화 추이: 8.5%('09.8) → 6.25%('10.5) → 6.0%('11.11) → 5.25%('12.3)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f
경 상 수 지	-23,776	-6,841	-7,320	-7,907	-7,818
경 상 수 지 / G D P	-11.6	-4.2	-4.5	-4.2	-4.2
상 품 수 지	-27,039	-9,459	-7,764	-7,722	-10,917
수 출	49,539	40,621	49,357	62,659	68,088
수 입	76,578	50,080	57,121	70,381	79,005
외 환 보 유 액	36,868	40,757	43,361	42,939	41,473
총 외 채 잔 액	102,246	116,908	123,619	129,629	131,563
총 외 채 잔 액 / G D P	50.1	71.2	75.2	68.3	70.5
D S R	27.6	31.3	31.3	25.6	20.0

자료: IMF, EIU, IIF.

□ 2010년 이후 GDP 대비 총수출은 지속적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루마니아의 총수출증가율은 -20.7%를 기록하며 대외거래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2010~11년에는 대 EU 수출 증가로 총수출증가율이 각각 13.9%, 25.6%를 기록하며 크게 개선됨. 2012년에는 유로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총수출증가율도 6.2%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총수출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총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36.1%, 2011년 39.3%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도 42.4%를 기록하여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4% 수준 유지

- 루마니아의 2009년 경상수지 적자는 해외 근로자의 송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GDP 대비 -4.2%를 기록하여 전년의 -11.6%보다 크게 축소되었으며, 2010년에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GDP 대비 -4.5%를 기록함.

- 2011년에는 해외 근로자의 송금 감소를 수출 증가가 상쇄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4.2%로 다소 축소되었으며, 2012년에도 유로존 경기침체에 따른 대 EU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상이전수지와 서비스수지가 호조를 보이면서 -4.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말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 대비 6개월분 수준

- IMF 구제금융 지원으로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4.6개월분에서 2009년 말 7.6개월분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유로존 경기의 일시적 회복으로 외환보유액은 소폭 증가함.
- 2011년에는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 대비 6개월분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2012년에는 5.4개월분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은 하락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

- 2005년 자본거래 자유화 이후 민간부문의 외화차입이 급증하여 2006년 이후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이 130%를 초과하였으며, 2009년에는 IMF 등으로부터 외화차입이 증가하면서 200%를 상회하였음.
- 2010년 이후에는 총수출이 증가하면서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나 2011년 말 기준으로 173.9%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단기외채상환부담은 증가 추세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에 31.3%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에는 25.6%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20%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은 2010년 72.1%에서 2011년 76.4%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84.4%로 예상되어 단기외채상환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단기외채가 증가하면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해외 채권자들의 부채 축소(deleveraging)로 외채구조가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바세스쿠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민투표 부결

- 빅토르 폰타 총리와 크린 안토네스쿠 상원의장이 이끄는 좌파 사회-민주 연합(USL)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 침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헌법의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트라이안 바세스쿠 대통령의 탄핵안을 상정하였으며 2012년 7월 6일 의회를 통과함.
- 폰타 총리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바세스쿠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2012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긴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8월 21일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9일 실시된 바세스쿠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민투표가 46.2%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투표자가 선거인 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민투표 결과는 무효라고 최종 판결함.
- 한편, 출구조사 결과 투표자의 88%가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바세스쿠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신뢰를 보여줌.

□ 연이은 총리 사퇴로 정국 혼란 가중

- IMF 구제금융을 받은 루마니아 정부는 공무원 임금, 실업수당, 연금 등을 삭감하는 재정긴축을 추진 중이며,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로 인해 에밀 보크 총리가 2012년 2월 사퇴함. 2008년 취임한 보크 총리는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루마니아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지지율이 점차 하락하였으며 2012년 초의 동유럽 한파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음.
- 후임으로 미하이 라즈반 운구레아누 총리가 임명되었으나, 외국자본에 국가 자원을 원칙 없이 넘겨주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긴축정책에 대한 반발도 지속되었음. 이에 운구레아누 내각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 투표가 실시된 결과 과반수 찬성(461 중 235표)으로 운구레아누 총리가 4월에 퇴진하고 후임으로 사회당(PSD) 당수인 빅토르 폰타 총리가 임명됨.

□ 공공부문의 부정부패는 여전히 높은 수준

- 나스타세 전 총리 등 다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부정부패 혐의로 사퇴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11년 2월에는 국경지대에서 경찰공무원 등 80여 명이 담배 밀수로 구속되는 등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1년 부패인식 지수에서 루마니아는 유럽 27개국 중 25위를 기록하여 유럽에서 공공 부문의 투명성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조사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높은 실업률과 소득 불평등으로 사회불안 요인 잠재

- 2000년대 이후 고도성장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으며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급속히 상승함. 2009~11년 실업률은 2009년 6.9%, 2010년 7.3%, 2011년 7.2%로 7%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실업률: 5.8%('08) → 6.9%('09) → 7.3%('10) → 7.2%('11) → 7.2%('12 전망치)

- 루마니아의 2011년 빈곤율은 40.3%에 달하며,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도 2011년 6.2에 달하여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됨.

□ 긴축 반대 반정부 시위 지속

- 루마니아 정부는 IMF와 합의한 재정적자 목표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0년 공공부문 임금 및 연금 삭감을 단행함. 이에 2010년 9월 부카레스트에서 경찰공무원 수백 명을 포함한 약 6천명의 루마니아 공무원들이 임금 삭감 및 인력 감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2012년 1월에도 정부의 긴축정책 및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함.

- 긴축 반대 시위에 책임을 지고 에밀 보크 총리가 2012년 2월 사퇴했으며, 후임인 운구레아누 총리도 긴축 반대의 여파로 의회의 불신임을 받아 취임 2개월 만에 퇴진함. 루마니아 정부는 2011년 3월 IMF와 신규로 체결한 대기성차관 협정의 지원조건 충족을 위해 공공부문 개혁 및 긴축 재정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적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국제관계

□ EU 및 NATO 회원국으로서 동 체제 안에서 외교정책 조율

- 2004년 3월 NATO 가입 및 2007년 1월 EU 가입으로 주요 외교정책 기조는 동 체제 안에서 조율되고 있으며, 2008년 8월 러시아의 그루지야 내 압하지야 및 남오세티아 독립 승인과 관련하여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행동에 유감을 표명하며 NATO 및 EU 대응에 동조함. NATO 및 EU 가입에 이어 현재 2015년 유로존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 인접국인 헝가리 및 불가리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세르비아와는 전통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루마니아는 EU 회원국 중 몇 안 되는 코소보 독립('08년 2월) 미승인 국가임.

□ EU는 최근 루마니아의 정국 불안에 우려를 표명

- EU는 루마니아 정부가 대통령 탄핵 추진 과정에서 헌법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EU 차원의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루마니아 정부는 탄핵 추진을 강행함.
 - 루마니아 정부는 대통령 탄핵안의 수월한 의회 통과를 위해 상·하원 의장을 교체했으며, 탄핵 국민투표 가결 조건이 유권자 과반 투표 및 투표자 과반 찬성에서 투표자 과반 찬성이 되도록 법 개정을 시도함.
- 루마니아는 쟁쟁조약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독일, 네덜란드 등이 루마니아 내의 부정부패와 사법개혁 부진 등을 지적하면서 가입이 연기되어 왔으며, EU가 대통령 탄핵 추진 등 최근 루마니아의 정국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당분간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쟁쟁조약: 유럽 내 가입국 간 공통의 출입국 관리로 자유로운 국경 통과를 보장하는 국경 개방 조약

□ 러시아 및 몰도바와는 긴장관계 지속

- NATO 가입 이후 러시아와 긴장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NATO의 유럽미사일 방어(MD) 기지를 루마니아에 구축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데 대해 러시아가 반발하는 등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나 분쟁상태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음.

- 또한 몰도바와는 루마니아의 잦은 내정간섭으로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몰도바의 EU 가입을 지원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몰도바는 1940년 루마니아로부터 분리 독립한 국가로 국민의 약 60%가 루마니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 및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체제전환 이전 채무리스크줄링과 채무감면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이후 채무구조 개선과 외환보유액 관리를 성공적으로 지속하고 있음.
- 2012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단기 2.6억 달러, 중장기 18.5억 달러로 총 21.1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690만 달러로 전체의 0.3%를 기록하고 있어, 공적 수출신용에 대한 연체금액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 EXIM: 상업은행 지급보증부 전액인수가능
- 영국 ECGD: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전액인수가능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등급의 하향조정 이후 현 수준의 등급 유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루마니아에 대하여 2008년 10월 S&P는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BBB-에서 BB+로 하향조정하였음. Fitch도 2008년 11월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취약한 루마니아의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BBB에서 BB+로 하향조정하였으나, 2011년 7월에는 루마니아의 경기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상향조정함.

○ 2009년 4월 OECD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는 루마니아의 통화가치 하락, 외채구조의 악화 등과 더불어 IMF 구제금융에 따른 지원조건 이행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으로 인해 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조정하였으나, 이후 추가적인 등급조정은 없었음.

- OECD: 5등급('03.1) → 4등급('04.1) → 3등급('07.1) → 4등급('09.4) → 4등급('11.1) → 4등급('12.1)

- S&P: BB('03.9) → BB+('04.9) → BBB-('05.9) → BB+('08.10) → BB+('10.3) → BB+('12.6)

- Moody's: Ba3('03.12) → Ba1('05.3) → Baa3('06.10) → Baa3('10.10) → Baa3('12.6)

- Fitch: BB('03.12) → BBB-('04.11) → BBB('06.8) → BB+('08.11) → BBB-('11.7) → BBB-('12.6)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수출입은행	C1	(2012.09)	C1	(2012.02)
OECD	4등급	(2012.01)	4등급	(2011.01)
S&P	BB+	(2012.06)	BB+	(2012.02)
Moody's	Baa3	(2012.06)	Baa3	(2012.02)
Fitch	BBB-	(2012.06)	BBB-	(2012.02)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0년 3월 30일(북한과는 1948년 11월 3일)

□ 주요협정: 투자보장협정(1990년), 문화협정(1991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93년), 항공운송협정(1994년), 원자력협력협정(2004년), 경제과학기술협정(개정, 2005년), 사회보장협정(2008년)

□ 교역현황('11): 교역총액 8.3억 달러(대 루마니아 수출총액: 4.6억 달러)

○ 1990년 수교 이후 양국 간 교역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9.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교역규모는 5.4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였음.

- 2011년 기준 루마니아는 우리나라의 제76위 수출대상국, 64위 수입대상국임.

○ 그러나 201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양국 간 교역규모가 7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2011년에는 8.3억 달러를 기록함.

- 주요 수출품목('11): 철강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합성수지

- 주요 수입품목('11): 자동차부품, 기계요소, 목재류, 의류

□ 해외직접투자현황('12년 6월 말): 28건, 4.4억 달러(투자실행 누계 기준)

○ 우리나라의 대 루마니아 직접투자실적은 2012년 6월 말 누계기준으로 28건, 4.4억 달러이며 2009~11년 연도별 직접투자 규모는 2009년 74만 달러, 2010년 3,016만 달러, 2011년 529만 달러를 기록함.

- 대 루마니아 주요 투자업종('1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전자부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표 4> 한·루마니아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대 루마니아	2009	2010	2011	주요품목
수 출	387	456	463	철강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합성수지
수 입	155	240	371	자동차부품, 기계요소, 목재류, 의류
합 계	542	696	834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루마니아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2009~10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 농업 부문의 호황, 수출 증가 등으로 2.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2012년에는 유로존 경기침체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긴축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개선, 소비자 물가상승률 안정, GDP 대비 국내총투자 및 GDP 대비 총수출 증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루마니아는 EU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유로존 경기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복잡한 행정절차 및 사회간접시설 부족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2008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011년 3월 IMF와 신규 대기성 차관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까지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감축하는 등 구제금융 지원조건 이행을 위해 긴축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침체 지속과 비인기성 개혁정책 추진으로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였으며, 재정긴축에 대한 반발 지속으로 2012년 2, 4월에 총리가 연속 사퇴하는 혼란을 겪음. 바세스쿠 대통령과 폰타 총리 간 갈등으로 2012년 7월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율 미달로 부결되었으며, 2012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루마니아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이후 등급조정이 없었으나, Fitch는 2011년 루마니아의 경기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함. 2012년 이후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루마니아의 국가신용등급을 변경 없이 유지해오고 있음.

조사역 송호석 (☎02-3779-5709)

E-mail: hssong@koreaexim.go.kr